

우울한 모를 둔 여아의 자아 발달을 위한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Child Sandplay Therapy for Ego Development, a Case-Study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부소장 최진아

Korean Child-Family Counseling Center
Director : Jin Ah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
| II. 사례개요 | 참고문헌 |
| III. 상담 과정 및 결과 | |

<Abstract>

This research was based on a case study of a child who experienced difficulties in ego development due to her mother's compulsive and depressed behavior. Twenty-four therapeutic play sessions, including 16 sessions involving sandplay, were conducted. Based on discussions by Neumann and Kalff, the child's early psychic development and ego development were observed during these sandplay.

As part of this investigation, I conducted counseling sessions in the sandbox where the atmosphere was free and safe. The sessions were based on mother-child unity with the therapist.

As a result, the child exhibited restoration of mother-child unity and showed the journey of constellation of self and ego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e effectiveness of sandplay in accelerating ego development.

주제어(Key Words) : 자아발달(Ego Development), 모래놀이치료(Sandplay), 모자일체성(Mother-Child unity)

I. 서론

부모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다. 어떤 성격, 심리적 특성의 부모를 만나는가 또는 어떤 가족적, 사회적 환경에서 자라나는가에 따라 아동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기도 하고, 부적응이나 병리적인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모의 우울, 불안, 강박, 완벽주의적 성향 등이 아동의 우울, 불안, 감정통제 능력, 자존감, 사회적 수용도, 행실 장애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희, 장래수, 2004; Maughan, Cicchetti, Toth, & Rogosch, 2007; Meadows, McLanahan, & Brooks-Gunn, 2007). 이에 모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처치로서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가 주로 실시되어 왔다.

놀이치료는 아동과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긴장된 아동을 이완시켜주고 불안과 방어적인 태도를 감소시키며 억눌린 감정을 표출, 해소하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자기를 탐색하고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김윤희와 이정숙(2003)은 부모자녀 문제로 인해 불안하고 자기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22회기의 놀이치료를 실시하였는 바 놀이치료 과정을 통해 아동의 불안정한 정서 및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정숙과 김윤희(2001)의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로 인해 적절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우울한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를 통하여 모와의 관계 재형성, 자율성의 회복, 자신감의 증진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영숙과 송영혜(2003)의 연구에서도 모-자녀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불안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를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였고, 낯선 사람과 장소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면서 적응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심혜원(2003)은 우울한 초등학교생의 놀이치료를 통하여 아동의 정서적 경직성이 이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모래놀이 치료는 Lowenfeld에 의해서 창시된 이래로, 융의 이론을 토대로 한 Kalf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리치료기법의 하나이다.

모래놀이치료는 인간이 치유와 전체성을 향한 기본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는 융의 기본적 가설을 토대로 한 것으로 모래, 모래상자, 치료자, 상징물 등은 치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첫째, 모래는 그 속성상 퇴행을 가져오고, 인간의 속마음을 표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써 인간을 무의식의 세계로 이끄는 촉진제가 된다. 아동은 모래상자를 통하여 인간 내부의 깊은 자기에게로 이끌려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모래를 만지는 촉각적 경험은 그 행위 자체로도

치료적 경험이 된다. 둘째, 모래상자는 한정된 공간과 틀 속에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므로 안전하게 내담자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안전하고 보호된 공간인 것이다. 또한 모래상자에서의 모래를 다루는 행위나 모형물을 배치하는 활동은 아동에게 안전감 뿐 만 아니라 운동 감각적 만족감 모두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모래상자 안에서는 그 어떤 표현도 허용된다는 측면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장이기도 하다. 때문에 모래상자에서 아동은 내부의 상징성을 촉진시키게 된다. 아동은 상자 속에서 자신의 상상된 세계를 볼 수도 있고, 그 세계와 자기와의 연결을 회복하기도 하며, 스스로의 존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모래상자는 아동이 전체성, 자기실현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 준다(아마나카, 김유숙, 2005, pp. 43-63). 셋째, 치료자와 아동의 관계는 치료를 촉진한다. 이를 모자 일체성이라고 한다. 인간이 자아 발달과 자기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모자 일체성을 경험해야 하는데, 초기 모성결핍으로 인해 모자 일체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아동이 형성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손상되고, 이러한 손상된 이미지는 개인의 지각과 반응을 왜곡시키고, 성격의 정상적인 성숙을 방해하게 된다(노치현, 황영희, 1998, pp. 18-24). 따라서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모자 일체성의 경험은 아동의 자아의 발달 및 정상적인 발달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상징물은 아동을 무한한 이미지의 세계로 이끌어 주게 된다. 아동은 상징물을 놓아가면서 내면 세계의 이미지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상징물이 전체의 구상과 맞는지 확인하기도 하며, 함께 하는 치료자에게서 의외의 자극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기표현의 과정으로써 자기로 향하는 여정이 된다(김보애, 2004, pp. 29-44).

이와 같이 모래놀이는 명백하고, 창조적이며, 인내적이며, 삶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자아와 자기를 통합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이정숙, 고인숙 역, 2002, pp. 12-64).

이에 Neumann(1973)의 이론을 토대로 Kalf(1980, 2003)는 모래놀이를 통한 자아발달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Turner, 2005 재인용, pp. 55-88).

Neumann은 초기 정신발달을 기초관계의 단계, 세계부모와의 분리 단계, 중심화의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었고, 초기 정신의 발달이 이루어지면 자아의 발달로 나아 간다는 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Kalf는 이를 모래놀이에 적용하여 모자 일체성 단계, 어머니와의 관계 단계, 자기배치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기초관계의 단계(모자 일체성 단계)는 주로 동물 어미와 새끼, 어머니와 아기, 음식을 공급하거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테마로 나타난다. 두 번째 단계인 세계부모와의 분리(어머니와의 관계)의 단계에서 아동은 원형

적 모로부터의 분리를 보여주고 세계를 대극으로 극화하기 시작한다. 이는 모래놀이에서의 쌍으로 표현된 소품으로 나타나는 데 어머니와 마녀, 성장과 죽음, 상실 등이 상징으로 표현된다. 세 번째 단계인 중심화(자기배치)의 단계에서는 아동의 정신이 어머니의 정신으로부터 자율적인 전체로 분리해가며, 중심화해가는 자기 원형의 안내를 받게 된다. 이에 아동은 삶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깊은 내적 중심화 경향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아의 발달에 대해서 Kalf(2003)는 동, 식물 단계, 투쟁단계, 집단적응의 단계로 설명한다. 동, 식물 단계는 썩트는 자아가 전체성의 세계로 들어감에 따라 상징적으로 동물과 식물 즉 숲, 정글, 동물들, 나무들, 대지 등으로 표현된다. 생명력과 기본적인 에너지가 풍부해 진다. 투쟁단계에서는 상징적 이미지가 전투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흔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하여 싸우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 단계에서 남성성과 여성성과의 대극 또는 어둠과 빛의 대극이 표현된다. 세 번째 단계인 집단 적응의 단계에서는 자아가 의지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고, 무의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때 자아는 완성의 느낌을 가지게 되며 도착했다는 느낌을 인식하게 된다.

모래놀이치료에서 아동의 정신은 발달의 매우 초기시기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위의 발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모든 모래놀이의 과정이 전적으로 위의 발달 과정에 따르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모래놀이에서 전체 발달 과정의 한 부분만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두 단계가 혼합되거나 교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Kalf의 모래놀이치료에서의 치유와 발달의 여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에서도 모래놀이를 통한 아동의 치유와 발달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장현숙(2007)은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20회기의 모래놀이 치료에서, 아동이 투쟁과 정화의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자기상을 극복하고, 여성성의 자아를 형성해가는 창조적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와 같은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이고, 사회성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전애영(2005)은 불안정한 모아관계로 인해 음성성을 나타내는 아동에 대한 모래놀이치료에서 아동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위축된 행동과 틱증상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명희(2002)는 불안정한 모자관계에 기인한 등교거부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놀이치료 접근 및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동의 불안이 해소되었고 정서적 안정을 이루었으며,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보애(2004)는 피학대 청소년에 대한 모래놀이 치료에서 아동은 자신의 내재된 공격성과 폭력, 적개심을 분출하였고, 모래상자에서는 처음에는 맹수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천사, 요정으로 그리고 상담말기에는 인간세계로의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장운정(2005)은 자기 존중감이 낮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래놀이치료에서 유아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직면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수용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더불어 자기존중감이 낮은 유아와 높은 유아 모두에서 동물적, 식물적 단계, 투쟁의 단계, 집단적응의 단계 등을 거치면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모래놀이 치료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를 갖는 아동들이 내부의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되어 가며 자아가 발달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울하고 강박적인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및 자아발달에서의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정신적인 발달 및 자아 발달을 위하여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였다. 본 모래놀이치료에서 Neumann과 Kalf가 제시한 자아 발달의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동의 자아는 어떻게 견고해지고,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자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사례개요

1. 연구대상과 가족상황

*대상아동 : 초등학교 2학년 여아(외동딸)

*가족관계 : 부(37세, 회사원), 모(36세, 전업주부).

아동은 보통 키와 마른 체격, 예쁜 얼굴이었으나 표정이 별로 없었고 손을 입에 대거나 움직이면서 이야기 하는 등 긴장되어 보였다. 외동딸이다. 아동의 부는 꼼꼼하고 고지식한 편이다. 모에 의하면 아동이 어릴 때는 아동에게 관심이 없어 보여서 모가 타박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부터는 아이와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이제는 자신이 못해주는 것을 부가 해 준다고 하였다.

전업주부인 모는 아이의 성장에 대해 걱정과 불안을 갖고 있었다. 임신 시에는 태내기 이상에 대해 걱정과 불안이 많았고, 그 이후로는 키가 자라지 않을까, 아플까 등의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출산 후 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아이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 안아서 재우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어릴 때부터 딸이 자기를 닮아 키가 크지 않을까봐 걱정이 많았던

탓에 음식 먹기를 강요하였고, 자신의 요구만큼 먹지 않을 때는 화내고, 타박을 많이 하였다. 또한 잠자는 것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아동이 쉽게 자지 않을 때면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때리고, 욕박지르고, 짜증을 내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2. 발달사 및 모의 주 호소문제

임신 시 특이사항은 없었고, 순산하였으며, 2달간 모유 수유를 하였다. 모의 빈혈로 인해 더 이상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다. 현재 22kg으로 발육표준치(26.16kg) 이하의 수준이다. 4세경에는 모가 아동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 아동의 이모가 일주일 정도씩 여러 차례 아이들 데려가서 돌봐주었다고 하였다. 그럴 때면 아이는 이모를 좋아하였고, 모는 아이에게 잘해주어야지 라고 생각했으나 만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이와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 모를 다시 만났을 때 아이는 품에 안기고 반가와 했다고 하였다. 모에 의하면 현재 아동은 엄마의 구박에도 꺾끗하게 공부를 잘 하고 친구도 많다고 하였다. 다만 잘 먹지 않고, 변비가 심하며, 한 달에 2차례 정도 감기에 걸리는 등 병약하고 왜소한 것이 걱정이고, 모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3. 심리 검사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나무-사람 그림검사(HTP), 문장완성검사(SCT)를 실시하였고, 가족관계 내에서의 아동의 관계양상 및 심리적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적 가족화 검사(KFD)를 실시하였다. 모에 대해서는 모의 정신병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격평가질문지(PAI)를 실시하였다.

1) 아동심리검사

HTP 검사시 아동은 손을 입에 대고,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등 긴장된 모습이었다. 그림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하고, 덧붙였고, 그린 후에는 검사자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등 검사자의 반응을 살피는 행동을 하였다.

집 그림에서 지면의 오른쪽 하단에 집을 그려서 불안정감과 부적절감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 굴뚝과 연기를 그림으로써 가족간의 교류와 애정에 대한 욕구가 시사되었다. 그러나 화분, 꽃과 나비 등을 볼 때 내부에 에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의 재료는 벽돌과 흙이다. 외부는 균열이 있으나, 내부는 균열이 없는 상태이다. 집안 분위기가 좋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족의 불안정성을 보상하고자 함을 시사하였다.

나무 그림에서는 나무 기둥에 웅이, 웅이 안에 다람쥐,

뿌리 가까이에 다람쥐 집 내부를 표현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의 외상적 사건이나 자아의 상처가 있을 가능성 및 일시적으로 퇴행함으로써 그동안 손상되고 고갈된 자아의 힘을 회복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시사되었다. 나무 주위에 새와 꽃, 둥지 등의 부가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주위로 부터 인정받고, 안전을 보장 받고자 하는 욕구의 가능성도 나타났다.

사람 그림에서는 여자의 경우 손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싶은 소망과 교류에 대한 불안감이 시사되었다. 남자의 경우 옆모습을 표현하여 자신감의 부족,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회피 등의 가능성이 나타났다.

KFD에서는 처음에는 “나만 그럴래요” 라고 하였으나 자신, 모, 부의 순서로 그림을 그렸고 자신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고, 모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옆모습을, 부는 문을 열고 밖(출근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표현하였다.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에 대한 옆모습의 표현은 모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했고, 부의 뒷모습에 대한 표현은 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시사하였다.

SCT검사에서 “내가 가장 행복 한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음식을 잘 만든다”. “우리 아빠는 모르겠다.” “나에게 가장 좋았던 일은 내가 좋아하는 food를 먹을 때” “내가 좀 더 나이가 많다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다. 2명만, 1명이 아니면 좋겠다. 3명이면 젖이 마를수도 있어요” 로 응답하였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이 미비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자녀출산에 대한 부정적 감정, 불안감 등이 시사되었다.

2) 모 심리검사

아동의 모는 걱정이 많고, 우울하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PAI를 실시하였다(표1), 그 결과 상당한 불안과 심한 긴장, 두려움, 신경과민 등을 나타내고(정서적 불안하위척도 : 78점), 정서적 불안정,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정서변화를 경험하는 것(정서적 불안정 하위척도 : 7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회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인지적 우울하위척도 : 69점)과 상당히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고 사소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강박장애하위척도 : 68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례개념화

본 연구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나친 불안과 강박적인 걱정을 갖고 있는 우울한 모에 의해 양육된 초등학교 여아에 대한 사례이다. 아동은 모의 불안과

〈표1〉 모의 PAI 임상척도 검사 결과

임상척도	하위척도	T점수
신체적 호소(SOM)	전환(SOM-C)	60
	신체화(SOM-S)	56
	건강염려(SOM-H)	64
불안(ANX)	인지적 불안(ANX-C)	63
	정서적 불안(ANX-A)	78
	생리적 불안(ANX-P)	66
불안관련장애(ARD)	강박장애(ARD-O)	68
	공포증(ARD-P)	59
	외상적 스트레스(ARD-T)	50
우울(DEP)	인지적 우울(DEP-C)	69
	정서적 우울(DEP-A)	43
	생리적 우울(DEP-P)	47
조증(MAN)	활동 수준(MAN-A)	42
	과대성(MAN-G)	30
	초조성(MAN-I)	61
망상(PAR)	과경계(PAR-H)	31
	피해망상(PAR-P)	41
	원망(PAR-R)	39
정신분열증(SCZ)	정신병적 경험(SCZ-P)	47
	사회적 위축(SCZ-S)	54
	사고장애(SCZ-T)	65
경계선적 특징(BOR)	정서적 불안정(BPR-A)	70
	정체성 문제(BOR-I)	63
	부정적 관계(BOR-N)	53
	자기손상(BOR-S)	54
반사회적 특징(ANT)	반사회적 행동(ANT-A)	35
	자기중심성(ANT-E)	39
	자극추구(ANT-S)	45

주. T점수는 원점수 평균을 50, 표준편차를 10으로 환산한 값. 70점 이상이면 성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에서 상당히 이탈되어 있음을 의미함.

우울로 인하여 다소의 불안감과 자신감의 부족, 자아발달에서의 어려움 등을 갖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양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5. 상담목표

- 1)모자 일체성을 경험하고, 자아를 발달시킨다.
- 2)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여 자신감을 향상 시킨다
- 3)부모와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Ⅲ. 상담 과정 및 결과

모래놀이치료를 주로 실시하였으나, 아동이 놀이를 선택할 경우는 놀이를 하도록 하였다. 2006.11.22부터 2007.6.27까지 주 1회 총24회기(모래놀이 16회기)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모에 대하여는 다른 상담자에 의해 상담이 진행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8회기로 종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모래놀이치료만을 보고하였고 처음 선택한 소

품이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처음소품, 과정요약, 내담자표현, 상담자 의견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1. 초기(1-5회기) : 치료자와의 관계형성 및 모와 관련된 애착문제 등을 표현

자신의 행동이 치료자에게 수용되는 지를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모와 관련된 애착의 문제, 돌봄의 부재 등을 표현하였다.

1)제1회기(2006.11.22)

음식 그릇들을 살피면서 가지고 놀아도 되는지 묻는다. 피겨를 선택할 때 들었다 놔다를 반복하면서 치료자를 쳐다보는 등 치료자를 의식하는 행동을 한다. 피겨를 거칠게 다루었고, 치료자에게 강압적으로 음식을 권하였다.

2)제2회기(2006.11.29)-모래놀이 1회기<사진 1>

1부 <제목 : 보물찾기>

(1)처음 선택한 소품 : 차가 놓인 티 테이블과 빈의자

(2)과정 요약

: 중앙에 차가 놓인 티 테이블과 빈 의자를 배치하고 우측 상단에 위험표지판 배치, 그 밑에 보물을 파묻는다. 치료사에게 보물을 찾으라고 하고, 모래위에 전갈, 게(장애물) 등을 배치한다(좋은 보석에는 전갈이 있습니다). 보물상자에 보물을 넣는다.

(3)상담자 의견

: 자기 내부에 감추어진 보물, 긍정적인 여성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물을 찾는 과정을 방해하는 방해꾼(전갈, 게)들이 있다. 전갈과 게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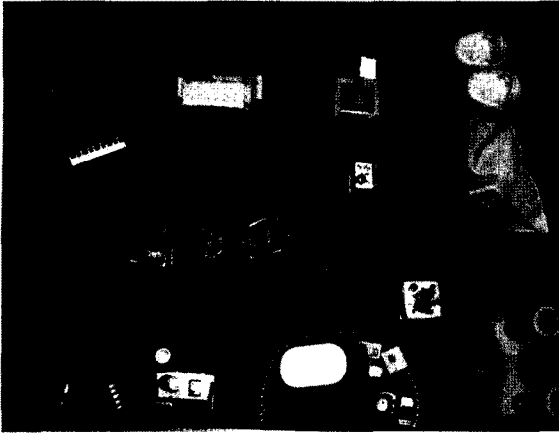
2부

<제목 : 나무위의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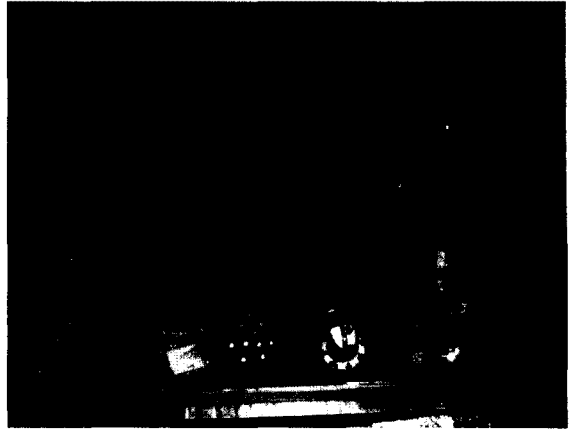
(1)처음 선택한 소품 : 나무



<사진 1> 나무위의 새



〈사진 2〉 페어리



〈사진 3〉 집

(2)과정 요약

좌측상단에 나무 배치, 좌측하단과 우측에 나무 두 그루를 배치한다. 나무 주위를 붕긋하게 모래로 덮고 다독인다. 알이 있는 새둥지를 각 나무위에 걸쳐 놓고 새에게 나무 열매를 먹인 후 각 나무 아래나 가지 위에 계, 전갈 등을 배치한다.

(3)내담자의 표현

알이 깨어나서 3마리의 아기가 나왔다. 아빠 새는 날아가 버렸고, 엄마 새는 있는데 안타깝게 1마리 죽고 2마리 남았다. 남은 새 둘이 각자 둥지를 갖게 되었고, 다시 알을 낳았다.

(4)상담자 의견

나무를 심고, 주변을 붕긋하게 봉우리를 만든다. 모성과의 애착, 성장과 관련된 문제를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갈, 계 등은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

3)제3회기(2006.12.6)

찰흙으로 빵을 만든다. 다양한 장식을 덧붙인다. 치료자에게 먹기를 권한다.

4)제4회기(2006.12.13)-모래놀이 2회기〈사진 2〉

〈제목 : 페어리〉

(1)처음 선택한 소품 : 체인.

(2)과정 요약

“집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체인을 모래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둔다. 가재도구, 피아노와 흔들의자 등을 놓고, 좌 중앙에 티 테이블과 주전자, 컵, 빈 의자 두개를 놓고 “됐다!”라고 한다. 변기와 욕조 등의 화장실을 배치하고 우측 상단 구석에 아기침대 두 개(분홍, 파랑색)와 두 아기, 그 옆에 의자를 배치한다(책 읽어 주는 의자다). 엄마 소품을 놓으려다 철회하고, 아기도 철회한다. 요정의 성을 우측하단에 배치한다.

(3)내담자의 표현

엄마(엄마 소품을 여러 번 바꿈)는 외출하고 없다. 쇼핑을 간다. 아기 중에 키 큰 아이(남자아이)만 데리고 간다. 다른 아기는 유모에게 맡긴다. 데리고 나간 아기도 보호소에 맡긴다. 쇼핑을 재미있게 하고는 아기를 찾는 것을 깜박 잊고 집에 왔다가 아차! 하고는 다시 가서 찾아온다. 밤이다. 엄마가 아기 목욕을 시킨다. 자동 욕조라서 아기를 담그면 알아서 해준다. 라고 하면서 아기를 번갈아서 욕조에 넣는다. 엄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다.

(4)상담자 의견

상자 안에 아무도 없다. 중앙의 차가 놓인 티 테이블과의 자는 공허하다. 침체되어 있다. 모는 아이를 유모나 보호소에 맡기고 잊어버린다. 신체적 접촉을 주지 않고, 자동욕소에서 목욕을 시키는 모의 차가움이 느껴진다.

5)제5회기(2006.12.20)

아기에게 음식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는 놀이를 한다. 거칠고 통명스럽게 행동한다.

2. 중기1 (6-10회기) : 초기 모와의 모자일체성을 형성.

작은 페어리에서 점차 더 크고 강한 페어리로 성장하였다. 페어리는 음식을 먹고, 자는 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였고, 어머니와의 모자일체성을 형성시켜 나갔다.

6)제6회기(2006.12.27)-모래놀이 3회기〈사진 3〉

〈제목 :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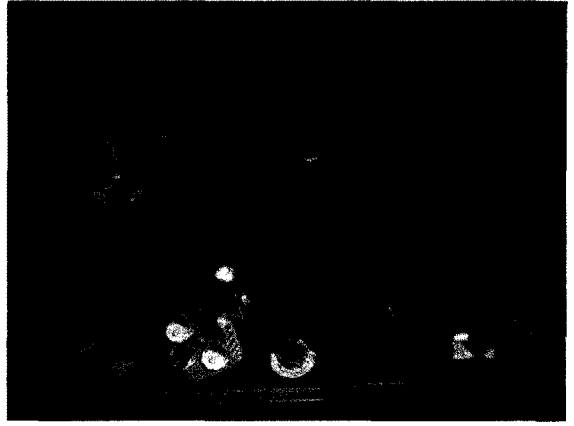
(1)처음 선택한 소품 : 큰 집

(2)과정 요약

우 하단에 큰 집, 좌측으로 빙 둘러 각종 집을 배치한다.



〈사진 4〉 배를 탄 페어리



〈사진 5〉 집과 신비한 나무와 꽃 그리고 천사

끝으로 좌 상단에 요정의 성을 배치하고 성위에 작은 요정(페어리)을 배치한다. 큰 집 앞에 공주 소품(4명)을 배치하고 요정의 성 앞에 연못과 신비한 거위 3마리 배치. 분홍 꽃다발(거위의 먹이)을 배치한다. 보석 바구니(광산), 작은 연못과 거위 한 마리, 산, 새장을 배치한다.

(3)내담자의 표현

페어리가 페가수스를 타고 여러 집을 방문하여 점심도 먹고 날아 다닌다. 산에도 다녀온다. 저녁 먹고는 집에 가서 잔다. 아침이 된다. 새가 알려준다. 이제는 마법사 시대가, 마법사가 될 거다.

(4)상담자 의견

모래 1회기 때 큰 나무와 새 동지가 있던 자리에 요정의 성이 놓여졌다. 성 앞 연못에 신비한 거위가 3마리 있는데 먹이로 꽃다발을 주었다. 우측 상단에도 작은 연못과 거위 1마리가 있다.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요정 페어리는 페가수스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각종 집을 방문하고 먹고, 자고, 일어난다. 정신발달의 매우 초기 상태에서 모자 일체성이 차츰 형성되어 간다.

7)제7회기(2007.1.3)-모래놀이 4회기<사진 4>

〈제목 : 배를 탄 페어리〉

(1)처음 선택한 소품 : 요정의 성.

(2)과정 요약

요정의 성을 좌 상단에 배치하고 우상단에 교사 소품을 배치한다. 정령의 호수, 우측 상단에 연못과 2마리의 거위 모자를 배치한다. 정령의 호수위에 두 척의 배를 배치하고, 호수를 넓힌다. 중앙의 배에 페어리를 태우고, 우측 배에 교사를 태운다. 교사가 공부에 대해 물어보고 잘했다고 한다. 헤어진다. 다리, 여자소품, 형체만 있는 아이4명 등을 배치한다.

(3)내담자의 표현

“바다예요. 호수와 만났어요. 만나, 만나, 엄청 커요. 가는 길이 있어요” 하면서 흥분한다. 여자 소품을 보면서 “엄마다. 아니 하녀다. 엄마는 발을 갈고, 5시에 온다. 아이들은 1명은 기타치고, 1명은 공부, 1명은 소파에서 자고, 1명은 2명의 아기를 돌본다. 각자 아이들 곁에 선생님이 한 명씩 있다”라고 한다.

(4)상담자 의견

페어리가 배를 타고 모성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호수가 요정의 성에서 흘러 내려와서 큰 바다가 된다. 물길 따라 에너지가 흘러가지만 아직 우측에 작은 연못이 있어서 통합되지는 않고 있다. 아기 원형은 아직은 무력한 것으로 보인다.

8)제8회기(2007.1.10)-모래놀이 5회기<사진 5>

〈제목 : 집과 신비한 나무와 꽃 그리고 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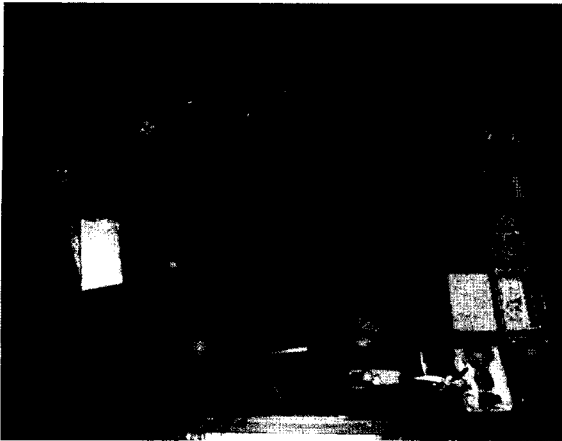
(1)처음 선택한 소품 : 재봉틀

(2)과정 요약

재봉틀, 난로를 우측 상단에 배치하고 흔들의자와 식탁 등을 배치한다. 중앙에 티 테이블과 빈의자를 배치한다. 문갑, 피아노, 책상, 식탁, 의자, 선풍기, 미끄럼틀을 배치한다. 중앙과 좌측 상단 식탁에 아이스크림을 놓는다(손님이랑 앉아서 차도 마신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좌 중앙에 배치한다(너무 튼다). 상자 아래로 이동한다. 트리(희망의 나무, 소원의 나무) 옆에 상자와 초, 소녀, 정령의 꽃을 배치한다. 아기침대와 아기를 우측 상단 피아노 옆에 배치(아기 기르려면 유모가 필요하다). 소녀 소품들을 피아노, 화장대, 재봉틀, 비치의자에 앉힌다. 좌 하단에 시녀를 배치한다.

(3)내담자의 표현

“부드러워, 모래 만질 때가 좋단 말이야”라고 한다. 고아



〈사진 6〉대가족

가 운동회에서 이겨서 트로피를 탔다. 유모에게 사랑을 했고, 다른 애들이 부러워했지만, 트로피가 날아가 버렸다. 트리에게 찾아 달라고 빌어서 소원을 이루었다. 상자에 있는 소녀들은 다 가족이 아니고, 혼자 있는 게 외로우니까 모여 있는 거다. 시너도 딴 집에서 일하다가 온 것이다.

(4)상담자 의견

아기와 소녀들이 등장하였다. 1회기 때 있었던 티 테이블과 빈 의자가 중앙에 비어있다. 교류를 못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그래도 가장자리에는 음식이 생겼고, 소녀들은 열심히 각자 일을 한다. 심리적 에너지가 좀 더 강해지고 있다.

9)제9회기(2007.1.24)-모래놀이 6회기〈사진 6〉

〈제목 : 대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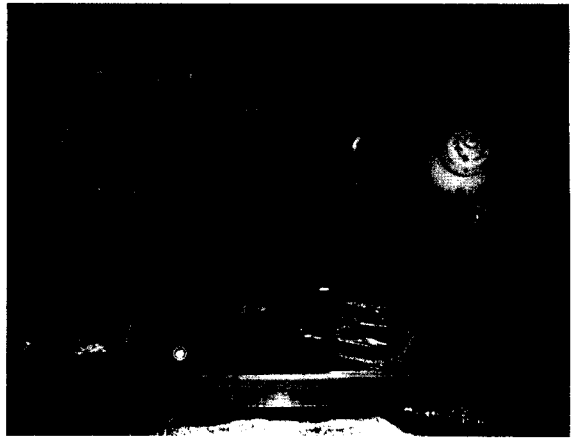
(1)처음 선택한 소품 : 책상

(2)과정 요약

좀 더 큰 천사소품을 새로운 페어리로 칭한다. 중앙에 티 테이블과 빈 의자를 배치한다(손님 만날 때... 저번이랑 엄청 비슷하다. 하지만 사람이 다르다). 우중앙에 쌍둥이 아기 소품을 배치하고, 흔들 의자를 “아기보는 의자”라고 한다. 식탁 등에 음식을 배치한다(음식이 더 많아야겠다. 됐다! 저번보다 다르다). 7명 아이들의 침대를 배치, 우 상단 문갑위에 고양이, 좌 중앙에 개를 배치한다(이상한 곳에서 있는 고양이, 개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다). 좌 중앙에 엄마 소품을 누이고, 화장지로 이불을 만들어 덮는다(엄마 침대는 준비 안했다. 따로 잔다. 엄마는 자기만 이불을 덮는다). 아이들의 침대 곁에 페어리의 의자를 배치한다.

(3)내담자의 표현

아이들이 침대에서 잔다. 페어리가 날아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다. 엄마한테는 안왔다. 어릴 때는 심어 줬는데, 그래서 7명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었는데... 라



〈사진 7〉페어리의 집

고 한다. 개는 페어리의 의자를 훔아서 깨끗하게 한다. 침대도 깨끗하게 한다. 고양이는 의자를 박살내서 야단을 맞는다. 고양이는 의자 위, 화장대를 깨뜨리고 엄마의 머리위에 올라가기도 한다. 아이들은 2명씩 일어나서 먹고 자고 한다. 아이들은 식탁으로 가서 우적우적 먹고, 자기 자리로 간다.

(4)상담자 의견

페어리가 더 커지고 강해졌다. 음식이 풍성하다. 아이들은 그것을 먹고, 자는 것을 반복한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있다. 아동도 자라고 있다. 더 강해진 페어리가 아이의 자립을 북돋아준다. 아동은 지난 회기의 모래상자를 기억하고, 이번 회기의 것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많은 음식이 뜨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고양이와 강아지가 나타났다. 무의식적이며 미분화된 자기상으로 보인다.

10)제10회기(2007.1.31)-모래놀이 7회기〈사진 7〉

〈제목 : 페어리의 집〉

(1)처음 선택한 소품 : 페어리

(2)과정 요약

좌 중앙에 페어리, 우하단 구석에 페어리의 보물 상자, 좌 하단 구석에 페어리의 집과 의자를 배치한다. 중앙에 티 테이블과 빈 의자 2개, 식탁과 음식접시, 중앙하단의 작은 연못과 거위 모자, 우하단 구석의 배와 수레, 가로막이(주차장이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가 한다. 멋진 주차장이다). 산타의 마차, 작은 뱀을 배치한다.

(3)내담자의 표현

: 페어리의 집에 루리가 놀러 온다. 이들은 아기 때는 통속에 봉인되었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엄마다. 요정이 되었고, 페어리는 외동딸이다. 그러나 지금은 커서 봉인이 안 되었다. 한 달 만에 봉인이 깨져서 나왔다. 엄마랑 함께 사는데 엄마는 일하고 애는 놀고 있다. 루리와 페어리



〈사진 8〉 8명 아이들의 집

가 간식을 먹는다. 땡땡! 아빠가 왔다. 산타 일을 한다. 아빠가 금화를 선물로 주고 간다.

: 요정들은 뱀을 좋아한다(각종 뱀을 만지면서). 여왕의 뱀이다. 줄리와 루리가 여왕의 딸이고 페어리는 후궁의 딸이다. 가장 작은 뱀은 후궁의 딸이 갖는다. 페어리는 아직 7살이다. 10살이 되면 중간 크기의 뱀(자유뱀)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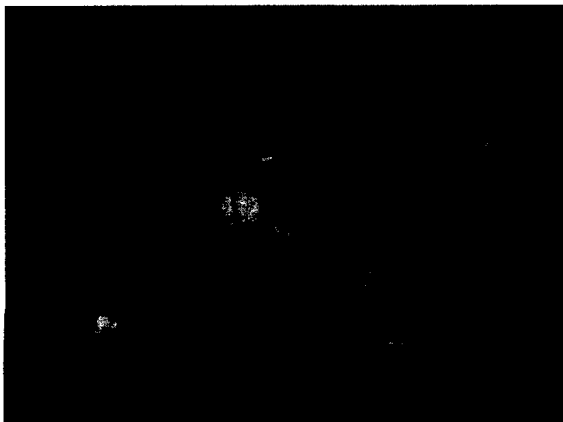
(4)상담자 의견

우측의 배와 자전거는 간혀 있다. 에너지가 간혀 있는 것 같다. 하단의 작은 언뜻에 거위 모자가 있고, 중앙의 빈 테이블이 여전히 있다.

3. 중기 2 (11-13회기)-무의식의 표현 및 원형적 모로부터의 분리

물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에너지가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원형적 모로부터의 분리과정을 표현하였다.

11)제11회기(2007.2.7)-모래놀이 8회기<사진 8>



〈사진 9-1〉 박물관

〈제목 : 8명 아이들의 집〉

(1)처음 선택한 소품 : 어미 오리

(2)과정 요약

X자 모양으로 강, 강 중앙에 어미 오리를 배치한 후 “길로 다닌다” 라고 하면서 우측 하단으로 이동시켰다가 “오리는 가고 부르면 다시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상자 아래에 내려 놓는다. 꽃마차와 나무, 등대, 풍차, 나무위의 십자가, 좌하단의 십자자를 배치한다. 소녀들을 각자 탈 것에 태워 여기저기 배치하고, 좌 하단 구석의 탈것 위에 칸나(소녀)와 아기를 놓는다.

(3)내담자의 표현

상자아래에서 칸나의 생일파티가 열렸다. 7명 아이들이 놀다가 은하수를 건너려는데 위험해서 어미 오리 위에 탄다. 은하수를 건너서 모래상자에 뛰어든다. 어미오리가 아이들을 탈것(차)으로 데려다 주다가 풀썩 빠진다. 아이들이 오리에게 재수 없다고 한다.

(4)상담자 의견

물이 하나가 되었다. 어미 오리가 다닌다. 풍차, 차와 마차 모두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길을 비추어 주는 등대도 있다. 아이들이 10살짜리 소녀로 성장하였다.

12)제12회기(2007.2.14)

아이클레이로 코끼리를 만들었다. 힘이 세고 큰 코끼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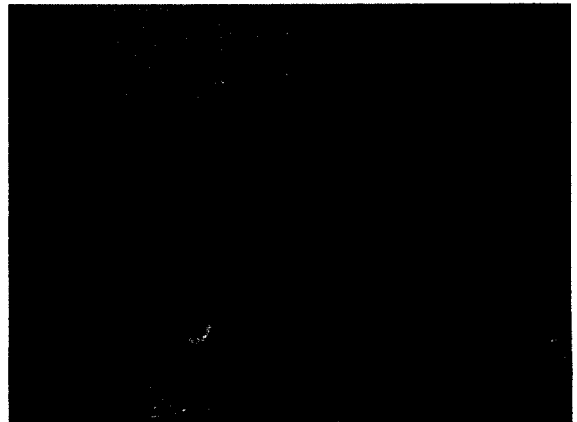
13)제13회기(2007.3.5)-모래놀이 9회기<사진 9-1, 9-2>

〈제목 : 박물관, 휴식공간〉

(1)처음 선택한 소품 : 큰 칼

(2)과정 요약

보물탐험가 2명(남, 여)을 중앙 하단에 배치한다(탐험가가 여기가 수상해 라고 해서 땅을 파보니 칼이 나왔다. 보물이다. 여자 탐험가가 판 것이다. 여자는 똑똑하다. 난 여자가



〈사진 9-2〉 휴식 공간



〈사진 10〉 어울림 박물관

좋다. 남자는 자고 있고 여자는 칼의 먼지를 털고 반짝거리게 만든다. 첫 번째 보물이다. 박물관에 전시할 생각이다. 여자가 사장이고, 남자가 부사장이다). 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소품, 전시물인 허수아비, 조각상, 배, 오토바이, 재봉틀, 데주, 춤추는 사람, 원두막, 호두까기 인형, 옛날 사람 인형, 피아노 등을 상자를 빙 둘러 배치한다. 좌측에 관람객을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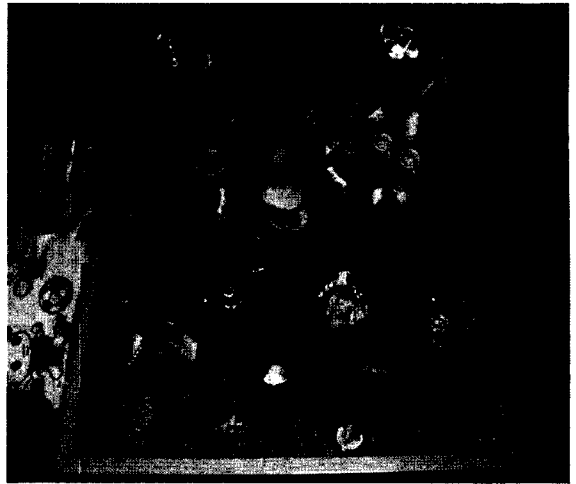
모래상자 아래에 소품을 놓는다(휴식공간이다). 티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 여자 아이 소품 둘을 의자에 앉히고 차를 마시게 한다(이들은 친구 아니 언니와 동생이다). 좌우에 탁자와 음식들, 먹고 있는 소녀들을 배치하고 흔들의자에 앉은 소녀와 난로를 배치한다. 다시 모래상자로 돌아와서 좌 상단 코너에 장미모양의 초를 배치한다.

(3)내담자의 표현

상자는 박물관이고, 아래는 휴식공간이다. 배가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다. 음식 코너(휴식 공간)가 맘에 든다.

(4)상담자 의견

박물관이다. 깊은 무의식이다. 여성탐험가가 고대 유물을 발견했다. 독립적인 자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상자 아래 휴식공간을 두었다. 희미하게 느껴지고 인식되는 자아에 대해 표현한다. 지금껏 비어있던 티 테이블과 빈 의자에 여자아이들이 앉아서 음식을 나눈다. 또한 이전에는 혼자 덩그러니 있던 흔들의자에 소녀가 앉아 있다. 그 동안 아기 돌보는 의자, 유모차 등으로 표현 되었는데 비로소 소녀가 쉬는 장소가 되었다. 또 소녀 옆에 따뜻한 난로가 있다. 따뜻한 분위기다. 이제 모와의 모자 일체성을 충분히 경험하고, 진정한 분리와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11〉 Sera's Happy Party

4. 중기3 (14회기)-자기배치

: 무의식이 의식화 되면서 내면의 자기와 마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14)제14회기(2007.3.14)-모래놀이10회기〈사진 10〉

〈제목 : 어울림 박물관〉

(1)처음 선택한 소품 : 악기 연주자(전시품)

(2)과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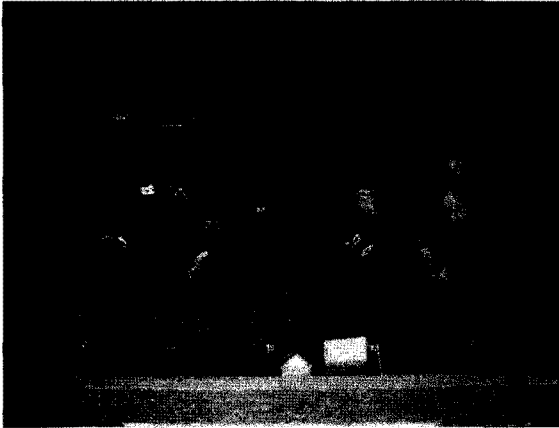
“유물 전시관을 만들 거다”. 라며 좌 하단에 악기 연주자 2명(전시품이다)을 배치한다. 하단에 장승 2개를 배치하고 (박물관의 입구다), 우측에 관람하는 탐험가와 여동생을 배치한다. 여러 전시품을 빙 둘러서 배치한다. 중앙에 초를 놓고 불을 피우고 싶으면서 피운다(사각형으로 만들 거다). 구슬로 촛불주위를 장식한다(밤이다. 사람들이 불을 켜다. 언제 꺼질까? 얼마나 오래 탈까?). “너무 허전하다”고 하면서 양탄자에 앉은 고양이(중국고양이)를 놓고, 바라보는 한 소녀소품을 배치한다. 엄마와 요람의 아기, 소녀들, 관람표와 표지판을 배치하고, 위험 표지판을 촛불주위의 보석 사이에 배치한다. 장승 앞에 대표소 아줌마와 표를 사는 소녀를 배치한다(표를 구매하고 있다).

(3)내담자의 표현

엄만 왜 안 올까? 내가 만든 것을 봐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모래상자를 한다. 난 불이 제일 맘에 든다. 그리고 대표소 아줌마와 표사는 아이가... 믿겨지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다니.. 가끔 난 너무 똑똑하다.

(4)상담자 의견

불이 나타났다. 원형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보인다. 사각형의 촛불을 보석들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다. 자기 배치로 보인다. 아동은 스스로 멋진 작품이라면서 감탄한다.



〈사진 12〉 농촌, 흥겨운 농촌

이 상자를 자기 엄마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 또한 엄마와 아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고, 소녀는 고양이를 대면하고 있다. 엄마와의 관계의 변화, 튼튼해 지는 자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5. 중기4 (15-20회기) : 독립적인 자아의 발달

활발한 양육을 통해 자아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일상생활로의 귀환을 보여주는 파티, 농촌, 풍경 등을 통하여 적응의 단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소녀가 등장하였다가 차츰,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유로운 소녀로 표현되었다.

15)제15회기(2007.3.21)-모래놀이 11회기<사진 11>

〈제목 : Sera's Happy Party〉

(1)처음 선택한 소품 : 음식 접시

(2)과정 요약 : 중앙에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를 병 둘러 배치한다. 하단에 돌고래상을 좌우 배치하고 경계를 만든다. 좌 상단에 유리공, 우상단에 하트모양 유리상자를 배치한다. 부엌과 놀이터, 좌우 상단의 십자가, 고양이, 강아지를 배치한다.

(3)내담자의 표현

세라의 행복한 파티다. 음식을 먹는다. 파티의 분위기가 아주 좋다. 앞으로 변할 것이다.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가에 먼 길을 달려왔다. 놀이터에서 놀기도 한다.

(4)상담자 의견

이젠 모든 인물들이 다 사람이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며, 함께 파티에 참여하고 있다. 판타지가 아주 활발하게 나타났고, 대단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인 자아의 출현과 성장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다. 다만 하



〈사진 13〉 아름다운 풍경

단의 고양이 두 마리가 더 성장시켜야 할 측면으로 보인다.

16)제16회기(2007.3.28)

소녀들이 예쁜 옷을 입고, 한껏 멋을 부리고 파티와 무용학원에 간다.

17)제17회기(2007.4.11)-모래놀이 12회기<사진 12>

〈제목 : 농촌, 흥겨운 농촌〉

(1)처음 선택한 소품 : 잔디 덩이

(2)과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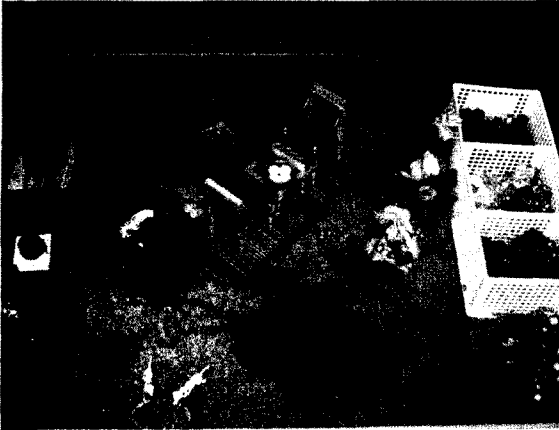
푸른 잔디 덩이, 절구, 낮은 꽃들, 하단의 창고(쌀이 많을 수록 울타리가 넓어진다)를 배치한다. 우 하단에 어머니, 중앙에 아버지, 좌상단의 할아버지(제일 높은 할아버지다. 쉬고 있다). 자동차를 탄 소녀, 먹이를 먹는 말과 우리 등을 배치한다. 또한 할아버지 앞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고양이 2마리를 배치한다. 자동차에 탄 소녀를 끈으로 묶어 끈을 바닥에 고정시킨다. 더 못 가게 하려고 한다. 중앙에 주머니, 자동차위에 작은 뱀, 난로를 배치한다(따뜻하게...).

(3)내담자의 표현

좌 중앙의 사람(부)은 열심히 일하고 쉬고 있다. 아이가 자동차를 탔다. 원래 자동차는 할아버지가 쓰던 건데 아이가 탔다. 자동차는 묶여 있어서 못 간다. 발을 망칠까봐 잡고 있다. 할아버지는 창고를 보러 온다. 며느리를 칭찬한다. 아내(모)는 밭일을 해야 한다. 아내가 뱀을 밟았다. "여기 있지 말라고 했지!" 라면서 구박한다. 뱀은 말썽을 피우다가 울타리를 망가트리기도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뭐든지 고쳐준다.

(4)상담자 의견

절구와 방앗간, 곡식 주머니가 나타났다. 재창조의 힘으로 볼 수 있겠다.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양육한다.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쟁의



〈사진 14〉 자동차를 탄 소녀

단계와 재적응의 단계에서의 일상생활로의 귀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녀가 탄 자동차가 끈에 메여 있다. 에너지가 완전 환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 역시 고양이 2마리는 좀 더 성장시켜야 하는 측면으로 생각된다. 난로, 방앗간, 꽃 등으로 정서가 분화되었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18)제18회기(2007. 4.18)-모래놀이 13회기<사진 13>

〈제목 : 아름다운 풍경〉

(1)처음 선택한 소품 : 강을 만든다.

(2)과정 요약

좌 중앙에 둥그런 강을 만든다(평평하게는 안 할 거예요 하면서 강을 만진다). 우측 소녀, 강을 바라보는 두 소녀를 배치한다. 강 중앙에 “물위에 세워진..”이라고 하면서 봉긋한 모래 둔덕을 쌓고 파라솔을 배치한다. 그네와 미끄럼틀, 식탁과 음식, 강가의 커플석, 큰 의자에 앉은 소녀, 소녀에게 안긴 고양이, 음식창고 등을 배치한다. 강아지를 배치하고 음식을 먹인다. “징검돌!”라며 강에 돌을 놓아 파라솔까지 연결한다. 강가에 두 마리의 물개를 놓는다.

(3)내담자의 표현

두 소녀가 물개를 보고 있다. 우상단의 큰 의자에 있는 소녀가 나다.

(4)상담자 의견

첫 회기에 큰 나무가 있던 좌측 중앙에 둥근 강이 만들어졌다. 하나로 통합된 강이다. 중앙에는 봉긋한 모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징검돌을 놓는다. 아동은 이제 모성과 편안하게 관계한다. 소녀는 고양이를 안고 있고, 고양이와 대면하여 돌본다. 편안하다.

19)제19회기(2007.5.2)-모래놀이 14회기<사진 14>



〈사진 15〉 보석나라

〈제목 : 자동차를 탄 소녀〉

(1)처음 선택한 소품 : 자동차를 탄 소녀.

(2)과정 요약

자동차를 탄 소녀를 배치한다. 소녀, 여자, 남자 소품을 배치한다. 중앙에 돛자리(쉬는 곳이다), 난로, 탁자, 탁자위의 만두와 물을 배치한다. 잔디, 장미, 작은 꽃들, 흰 장미, 열매있는 나무, 우측에 보석돌(도시락이다)과 할아버지를 배치한다. 좌 상단에 케익, 하단에 강아지 2마리와 먹이통을 배치한다.

(3)상담자 의견

자동차를 잡고 있던 끈은 이제 없다. 자유롭다. 에너지가 환류한다. 1회기에 모래 속에 감추었던 보석을 포함한 모든 보석들이 드러났다. 긍정적인 여성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 노현자의 원형으로 보인다. 강아지도 먹이를 먹고 있다.

20)제20회기(2007.5.9)-모래놀이 15회기

〈제목 : 없음〉

(1)처음 선택한 소품 : 피아노.

(2)과정 요약

우 하단에 피아노, 좌 하단에 재봉틀을 배치, 소녀 한 명을 재봉틀 앞에 앉히고, 다른 소녀를 피아노 의자위에 앉힌다. 중앙에 난로와 흔들의자에 앉은 소녀, 우측에 꽃을 보고 있는 소녀, 가구들을 배치한다. “이제 가운데에 있어야 해요” 하면서 초기에 놓았던 티 테이블과 빈 의자를 중앙에 배치한다. 의자 주위에 하트보석과 강아지를 배치하고, 악기 연주자도 배치한다. 제목은 없다 라고 하면서 모래를 뭉쳐서 덩이로 만들고는 만두라고 한다. 만두를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는다. 중앙에 한 접시, 사면에 한 접시씩을 놓은 후 모에게 보여주겠다고 한다.

(3)상담자 의견

소녀들은 각자의 일도 하고, 꽃도 구경하고 의자에 앉아 양육도 받는다. 활기 차다. 아동은 상담 초기에 비어 있었던 티 테이블과 빈 의자를 인식한다. 자기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위에 그들을 위한 친구들을 놓아준다. 이들이 성장을 축하하는 것 같다.

6. 말기(21-24회기) : 긍정적 자아상의 형성

출산과 양육,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대되었다. 또한 모래상자를 통하여 통합되고 긍정적인 자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1)제21-23회기(2007.5.16-6.13)

21-23회기동안 인생게임을 한다. 21회기에서 “딸아이를 낳아야 할 텐데..”라면서 자기 성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표현한다. 22회기에서는 쌍둥이 출산의 영역에서 해당이 없는데도 쌍둥이를 낳겠다고 하여 총 4명의 자녀를 선택했다. 23회기에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다. 종착지에 도달한 후 이웃인 치료자에게 놀러오라고 초대한다. 이웃사람이 와서 자신의 집을 보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부러워 할 것이라고 한다.

22)제24회기(2007. 6.20)-모래놀이 16회기<사진 : 15>

<제목 : 보석나라>

(1)처음 선택한 소품 : 소녀

(2)과정 요약

좌 하단에 소녀(아름답다)를 배치하고, 중앙에 강을 판다 (엄청 크게 할 거다). 큰 탁자, 난로, 낮은 나무 등을 배치한다. 반지를 강 중앙에 배치, 보석을 강의 주변 상, 하, 우에 배치한다. 구슬보석을 반지위에 올려놓고 “딱 맞다” 라면서 좋아한다. “사람은 애 한명!” 이라면서 소녀를 가리킨다. 흰 장미의 꽃잎을 펼쳐 강에 띄우고, 강의 주변을 흰 장미로 장식한다. 강에 띄운 꽃잎을 두 개로 분리하여 띄운다. 우 상단에 빨 소리 2개, 달과 구슬보석 2개를 배치한다.

(3)내담자의 표현

소녀는 경치를 보는 중이다. 꽃잎이 한 장이면 허전해서 2개로 했다. 소녀가 너무 예쁘다. 내가 이런 상자를 만들다니...정말 멋지다. 이곳은 보석나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꽃에는 보석 가루가 붙어 있다. 구슬도 보석이다. 반지는 마법의 반지다. 소녀는 위를 보고 있다. 저기 결혼하는 사람을 본다. 자기도 결혼하고 싶어 한다. 엄마에게 이걸 보여 줄 것이다.

(4)상담자 의견

중앙에 하나로 통합된 강이 있다. 강 가운데 꽃잎이 있다.

보석나라이다. 보석나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이제 보물이 드러났고, 아름답고 성숙한 소녀로 성장하였다. 아동은 이제 자기 내부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심리검사를 통한 변화

치료 후 HTP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 그림에서 적당한 크기의 집과 문, 창문, 집 옆에 강아지 집과 강아지 등을 표현하였다. 나무 그림에서는 나무위에서 아기 새에게 먹이를 먹이면서 “아이구! 울 새끼” “오냐”라며 즐거워하는 엄마 새와 먹이를 먹고 편히 자는 아기 새를 표현하였다. 또한 나뭇가지에 연결된 그네를 타는 소녀들을 표현하였다. 사람 그림에서도 손과 눈 등을 그렸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상과 안정감,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게 됨을 볼 수 있었다. KFD에서는 가족이 소파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서로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아동은 가운데 앉아 있었다. 이는 가족 간에 친밀하고 온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SCT에서는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생일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 한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기말고사 성적” “우리 엄마는 화나면 무섭다” “우리 아빠는 나의 놀이 기구다” 라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행복해 함으로써 존재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인에 대해서는 사전검사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나를 좋아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걱정 거리에 대해서 사전검사에서는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감정표현을 하지 않았으나, 사후에는 학업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을 하게 되었다. 모에 대해서는 사전검사에서는 피상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관계적 측면에서 표현하였다. 부에 대해서는 사전검사에서 회피적 태도를 보였으나, 치료 후에는 자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IV.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성장에 대해 지나친 불안과 강박적인 걱정을 갖고 있는 우울한 모에 의해 부적절한 양육과 돌봄을 받은 초등학생 여아에 대한 모래놀이 치료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는 진행과정에서 슈퍼비전(슈퍼바이저 : 한국 모래놀이치료학회장 김보애)을 받았고, 해석에 슈퍼비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대상인 아동은 모의 불안과 우울로 인하여 다소의 불안감과 자신감의 부족, 자아발달에서의 어려움 등을 갖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양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총 24회기 동안상담이 진행되었고 주로 모래놀이치료(16

회)를 실시하였다. 모자 일체성을 경험하지 못하여 자아가 무의식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했던 아동은 모래놀이를 통하여 초기 정신의 발달 및 자아발달의 테마를 보여 주었다. 아동은 Neumann과 Kalf가 제시한 초기 정신발달의 단계 및 자아발달의 단계와 유사한 여정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은 초기 정신발달의 단계인 모자 일체성, 어머니와의 관계, 자기 배치의 과정과 독립적인 자아의 발달 및 긍정적인 자아상의 형성을 표현하였다.

상담의 초기에 아동은 치료자와의 관계 형성 및 모와 관련된 애착문제 등을 표현 하였다. 2회기(모래1)에서 아동은 두 가지 상자를 보여주었다. 모래 속에 보석을 묻고 보물의 발굴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전갈과 게 및 티 테이블과 빈 의자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상자에서는 큰 나무를 심고, 새둥지와 아기 새를 보여주었다. 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표현되었고, 자기 내부의 긍정적인 여성성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4회기(모래2)에 등장한 작은 페어리는 상담의 중기1 단계인 6, 8, 9회기까지 혼자 또는 아기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자는 것을 반복한다. 이는 신생아의 시기, 발달의 매우 초기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자 일체성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으로서 아동이 초기 모와의 경험에서의 박탈과 성장 저지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담의 중기2 단계인 11회기(모래8)에는 강이 하나로 통합되고, 심리적 에너지가 활발하고 풍성해 지면서 모와의 분리로 나아감을 보여주었다. 또한 13회기에서는 심연의 무의식이 표현되었다. 여성 탐험가의 유적 발굴, 박물관을 표현하면서 더 독립적인 자아가 보여 졌다. 한편 상자 아래에서 변화가 표현되었다. 그동안 중앙에 있었던 티 테이블과 빈 의자에 사람이 교류하였고, 아기돌보는 의자, 유모차로 불리웠던 흔들의자에 소녀가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였다. 이는 모와 교류하고, 진정한 분리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다. 다음으로 상담의 중기3 단계인 14회기(모래10)에서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고, 자기 배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 촛불, 불을 둥글게 둘러싼 보석들이 등장한다. 이때 자기와 마주한 아동은 매우 만족스러워 했고, 이런 작품을 만든 자신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였다.

다음 상담의 중기4 단계에서는 독립적인 자아의 발달이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alf의 자아발달 단계처럼 그 과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양육과 성장을 통해 집단 적응의 단계로 나아갔다.

15회기(모래11)에서는 충분한 환타지, 놀이의 경험이 표현된다. 17회기에서 아동은 흥겨운 농촌을 표현하였다. 일상생활로의 귀환을 보여주었다. 또한 절구, 방앗간, 농사를 짓는 것 등을 표현함으로써 재창조의 힘이 생겼음을 나타내주었

다. 모성상, 부성상의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19회기에서 심리적 에너지가 자유롭게 환류한다. 자유롭게 즐거운 성장이 표현되었다. 상담의 말기인 24회기에서는 중앙에 하나로 통합된 둥근 강이 나타났다. 2회기 때 숨겨졌던 보석들이 드러났다. 아름다운 소녀가 등장하였다. 아동은 매우 흐뭇해했고, 만족스러워 하면서 단 한명이라고 강조한다. 긍정적인 자아상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본 모래놀이 치료를 통해 아동은 작은 요정 페어리->좀 더 큰 요정 페어리->아기들->소녀들->흥겨운 농촌의 소녀->아름다운 소녀로 변화하고 성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피학대 청소년에 대한 김보애(2004)의 연구에서 동물에서 천사, 요정으로 마침내 인간세계에 대한 표현을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결국 아동은 모래상자를 통하여, 생후 초기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을 이겨내고 모자일체성을 경험하고, 분리와 자립을 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인식하고 이제 아름다운 소녀로 재탄생되었다.

한편 치료과정에서 보여준 놀이에서도 아동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초기에 아동은 버려졌던 경험을 거칠고, 투박한 양육의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주도성과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담 말기에서 보여준 놀이에서 아동은 자신의 성에 대한 긍정적 수용,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기대를 표현하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느꼈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진행하면서 자신감을 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모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자아발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모래놀이치료의 치료적 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보애(2004). 피학대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8(1), 37-55.
- 김보애(2004). *신비스러운 모래놀이치료*. 서울 : 학지사
- 김영희, 장래수(2004). 부모의 완벽주의, 우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 *놀이치료연구*, 8(1), 117-139.
- 김윤희, 이정숙(2003). 부모자녀관계 문제로 불안한 아동의 단기놀이치료. *놀이치료연구*, 7(2), 23-40.
- 노치현, 황영희(1998). *모래놀이치료-경험과 표현-*. 서울 : 동서문화원.
- 심혜원(2003). 우울한 초등학교생의 놀이치료 사례. *놀이치료연구*, 7(2), 75-87.
- 야마나카 야스히로, 김유숙(2005). *모래놀이치료의 본질*. 서울 : 학지사
- 이명희(2002). 분리불안형 등교거부아의 모래상자놀이치료.

- 놀이치료연구, 6(2), 59-73
- 이정숙, 김윤희(2001). 우울로 인해 자율성이 부족한 아동의 놀이치료. *놀이치료연구*, 5(1), 47-55.
- 장윤정(2005). 자기존중감에 따른 유아의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연구.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현숙(2007). 비사회성 불안정애착 유아의 모래놀이치료사례. *놀이치료연구*, 11(1), 53-75.
- 전애영(2005). 음성틱이 있는 아동의 모래놀이 치료사례. *놀이치료연구*, 9(1), 85-102.
- 한영숙, 송영혜(2003). 불안장애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7(2), 89-98.
- Carey, L. J.(2002). *Sandplay therapy with children and families*. Jason Aronson. Inc. 모래놀이치료-아동 치료와 가족치료 -. 이정숙, 고인숙(공역). 서울 : 하나의학사. (1999년 원저발간).
- Maughan, A., Cicchetti, D., Toth, S. L., & Rogosch, F. A.(2007). Early-occurring maternal depression and maternal negativity in predicting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ocioemotional difficult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5), 685-703.
- Meadows, S. O., McLanahan, S. S., & Brooks-Gunn, J.(2007). Parental depression and anxiety and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across family typ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5), 1162-1177.
- Turner, B. A.(2005). *The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California : Temenos Press.

(2008년 1월 31일 접수, 2008년 3월 11일 채택)